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 12 제167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 진행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대림 제3주일 (12월 11일)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 11:2-11)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디에릭 보우츠, 1462-1464년, 목재,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 독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리고, 이를 기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대림 제3주일 인 오늘을 ‘환희의 주일’, ‘기쁨의 주일’이라 부릅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강생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의 복음』(102항) 이 만남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의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강생의 신비는 모든 인간 생명이 갖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지영현 시문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12. 15.)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88번 “임하소서 구세주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 11,3)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들어오시기를 청한 적이 있습니까?

†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마태 11,6)

인간적으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이나 사업 등, 인간적으로 간절히 원해서 기도한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교우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믿음에 회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기도와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은 정반대에 놓여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섭리 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 뜻을 따라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내 기도와 내 뜻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고 하느님과 신앙을 의심하는 태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종교관에 머물러있는 저급한 모습일 뿐입니다. 깊은 신앙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청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과 기도를 통해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임하소서. 제 마음에” 올해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 탄생해 오시는 성탄을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88번 “임하소서 구세주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대림 제4주일(12월 18일)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이하였다. (마태 1,18-24)



요셉의 꿈 (가에타노 칸돌피, 1790년 경, 유채, 개인소장)

요셉은 구세주 탄생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마태 1,24 참조), 구세주 탄생의 증인이 되었으며, 위기에 처한 성모자를 정성껏 돌보고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강생과 하느님의 인간구원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굳은 믿음으로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요셉과 같은 굳은 신앙과 부성애로 무장한 아버지들이 온갖 위기에 처한 가정과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12. 22.)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이하였다.



-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들읍시다.

†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태 1,20)

어떤 두려움 때문에 천주교 신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거나 숨기고 또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선택을 못 한 적은 없습니까?

†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마태 1,24)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거나 상황이지만 신앙인이기에 기꺼이 받아들였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요셉도, 성모님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 명령에 대한 순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씨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받아들였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수월한 삶을 버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험하고 고독한 광야의 삶을 선택하였고, 예수님도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며” 십자가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명하는 것이 대림절의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김치 한 포기를 담아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옳은 김치를 담글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김치에 담긴 하느님의 뜻은 알고 있기에 김치에 있어서는 수월하게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우리를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많은 인생사 일들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선택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또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아 따를 수 있는 용기있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이웃과 함께하는 소공동체

여좌동본당 구역분과 위원장 문정애(다니엘라)

저희 여좌동본당은 봄이면 벚꽃으로 유명한 곳으로, 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을 지나 진해 중·고등학교와 여좌천 벚꽃길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3개 구역의 16개 반 소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19 이후로 소공동체 모임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일 교중 미사 후, 매월 두 번 소공동체 반별로 돌아가며 반원들이 사랑나누기 '한술밥'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공동체가 단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 달에 두 번이지만 신자들이 남녀 노소 구분 없이 밝은 얼굴로 함께 하는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2021년에는 3구역 19반 소공동체가 위치한 지역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모든 반원이 이주하게 되었으나 5년 후 신축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다시 많은 신규세대가 유입되어 활기찬 소공동체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모임은 하지 못하더라도 본당 소식과 일정은 꾸리아와 함께 최대한 많은 신자 분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소공동체장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환우들의 병자영성체는 병원방문을 할 수가 없어 마음이 아프지만 가정에 계시는 환우분들은 병자영성체를 할 때 신부님과 함께 담당 소공동체장들이 같이 방문하여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 독서봉사는 소공동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나면 반별로 연도를 하고 장례 미사에도 조심스럽게 참석하였고, 못 오시는 분들께는 기도를 청해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2022년부터 소공동체장 모임은 재개하였으나 소공동체 모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사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소공동체장들과 반원들이 교구보와 본당 소식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조금 사그러든 코로나19로 인해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소공동체가 이웃과 함께 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끝나면 저희 여좌동본당의 소공동체도 진해 벚꽃처럼 다시 활짝 피리라 희망합니다.



성사는 무엇이며, 교회의 성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로서, 이러한 가시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교회의 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로서 일곱 가지이다.

해설

성사의 세 요소는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② 은총을 나타내는 가시적 표징으로 되어 있으며 ③ 그 표징이 나타내는 은총을 이루어준다.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당신의 은총을 나누어 주고자 **세우신 성사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성사들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표징**이다. 성사들은 그리스도의 행위와 성령의 힘으로 그것들을 가리키는 은총을 실제로 이루어 준다.”(1084항, 1131항도 참조).

교회에는 일곱성사가 있다. 세례·견진·성체·고해·병자·성품·혼인 성사다.

용어

표징

표징은 성사를 보이는 실재가 되게한다

성사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애가 드러내는 신비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의 봉사자들을 통하여 성사 안에서 나누어 주시는 것의 기초가 된다.

해설

성사를 그리스도의 성사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신비, 특히 파스카 신비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의 봉사자들을 통하여 성사 안에서 나누어 주시는 은총의 기초가 된다. 성사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힘 이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행위다.

*한남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임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